

“현대사 가장 아픈 손가락...한 풀어줄 시간 많지 않다”

여순사건 73주년 추념식

김부겸 총리 영상추모사

“진상규명에 힘 모아달라”

송영길 대표 기념일 제정 등

당 차원 후속조치 이행 약속

19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73주년 추념식은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의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에 보낸 영상추모사에서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내년 출범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피해자와 유가족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이라며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픈 역사를 되짚어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역울한 영령을 위로하고 갈가리 찢긴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또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넘어 화해·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확실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여순사건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모시고 반드시 참석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기념일 제정’과 ‘위령제의 대통령 참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 차원의 후속 조치 시행’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73년 전 이념의 아픔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 희생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연좌제의 시퍼런 칼날에 통곡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여수·순천인의 아픔을 공감한다”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가 회복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또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조례 제정, 국비 확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유족 증언 녹화사업,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족지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전남과 전북·경남 등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의한 대표적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오전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16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73년 만인 올해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와 국민의 간절함 열망에 힘입어 결실을 맺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전두환 정치 찬양 발언 논란

지역정치권·오월단체 규탄

이재명 “호남인 능멸” 비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의 실언을 넘어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지역 정치권, 오월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호남인 능멸”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갈수록 태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호남인들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진상규명조차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오월단체 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호 발언과 관련해, 호남 폄하라고 규탄하며 즉각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시당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며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

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전두환의 집권 기간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으며 낙후의 길을 걸었다”며 “엄혹한 전두환 통치 기간에 그를 칭찬하고 찬양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고 지적했다. 시당은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호남인들의 정치적 시각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군사정권의 암울했던 독재정치를 찬양하고 호남민심을 비틀고 왜곡함으로써 윤 후보는 전두환을 계승하는 군부독재의 후예임을 단천하에 드러냈다”면서 “윤 후보는 호남의 ‘전두환 찬양’이 일반화된 것 처럼 호남인과 국민을 속이는 언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월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전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학술 원훈인 전두환을 비호하고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갑 당협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이번주 지사직 사퇴...대장동 넘어 본선 모드

靑회동·이낙연 만남도 추진

대장동 2차전 국토위 국감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의 첫 고비를 넘기면서 본격 본선 체제에 나섰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별다른 입증 없이 하지 못하면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의 의혹은 본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의혹을 털어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본선행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일단 전남 행안위 국감에서 성공적인 1차 방어전을 치렀다고 19일 자체 평가를 내렸다. 대장동 사업이 이 후보의 공익환수 성공사례이

고 민간 부분의 수익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에 가깝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한 데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렌터카 돈다발 사건’으로 조직폭력배의 허위 주장에 근거한 공세를 폈다는 논란이 휩싸이면서 국감을 통해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들 때는 당내 ‘불안한 후보론’과 당 밖 맹공의 배경이던 대장동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꺼낸 국감 출석 승부수가 먹혀들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20일 국토위 국감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을 끝으로 대장동 국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혹은 검·경 수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전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감과 함께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경기지사직 사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도정을 정리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22일이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국감을 마치고 만나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주말 중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역시 원팀 선대위 구성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공을 들이는 지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